

#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

---

## 제9차 ASEAN 통계기관장회의(AHSOM9) 참석 (The Ninth ASEAN Heads of Statistical Offices Meeting)

---

- 목 차 -

I. 출장개요

II. 출장수행사항

III. 향후 동아시아 통계협력 현안 검토

IV. 기타

<붙임> AHSOM9 회의 내용

## 제9차 아세안통계기관장회의(AHSOM9) 참석 결과보고서

### I. 출장개요

#### □ 참가배경

- 아세안통계기관장 회의(AHSOM)는 매년 ASEAN회원국(10개국) 통계기관장이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 통계현안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아세안의 주요 협력파트너 국가(한·중·일 및 호주, 뉴질랜드 등)와 국제기구 주요관계자들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
- 통계개발원에서는 작년 11월에 아세안사무국(ASEAN secretariat)과 공동으로 국가통계제도발전 한-아세안 통계개발포럼을 실시한 바 있음
- 아세안사무국에서 이번 제9차 아세안통계기관장회의에 한국통계청장을 옵서버로 공식 초청하였으나 청장님의 일정상 참가치 못함.
- 하지만,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통계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청장을 대신하여 통계개발원장이 참석

#### □ 참가개요

- 출장기간 : 2009.1.14.(수)~1.17.(토)
- 출 장 자 : 2명(통계개발원 이재형 원장, 김인식 주무관)
- 회의일시 : 2009.1.15~16
- 회의장소 : 싱가포르 그랜드플라자파크 호텔
- 회의주관 : 아세안사무국(ASEAN secretariat), 싱가포르 통계청
- 참 석 자 : 아세안 통계기관장, 한·중·일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
- 회의내용
  - 자료배포, 공유 및 분석에 관한 실무그룹보고
  - 아세안 지역 발전 통계지표 및 측정, SNA부문 아세안 협력, 통계 및 분류
  - 자원배분계획, 아세안과 국제프로그램 및 협력 이니셔티브

- 출장목적

- 제9차 아세안통계관장회의 및 EAMS(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회의)관련 “한·중·일”회의 참가
- 아세안국가와 통계분야 주요현안 청취 및 관련정보 수집
- 아세안 사무국, 통계기관장 및 국제기구관계자와 협력네트워크 구축

□ 출장 주요일정

구 분	월 일	시 간 대	내 용	비 고
1일차	1.14.(수)	15:55-21:15	이동(인천공항→싱가폴)	KE641
2일차	1.15.(목)	18:00-20:00 20:00-21:00	아세안통계기관장 만찬간담회 참석 “한·중·일” EAMS 미팅	그랜드플라자 파크 호텔 (싱가포르)
3일차	1.16.(금)	08:30-08:50 08:50-09:20 09:20-09:45 09:45-12:30 12:30-13:30 13:30-15:30 15:30-15:45 15:45-17:00 18:00-21:30	개회사, 인사말 기념사진 촬영 커피 브레이크 어젠다1-5 오찬 어젠다6-8 커피 브레이크 합동성명서 채택, 미팅 리뷰 공식만찬	그랜드플라자 파크 호텔 (싱가포르)
4일차	1.17.(토)	21:40-05:50(+1)	이동(싱가폴→인천공항)	

II. 출장 수행내용

1. EAMS<sup>1)</sup>(동아시아 산업통계 전문가회의) “+3 국가” 회의 참가

□ 일시 및 장소 : 2009. 1.15(목), 그랜드플라자 파크 호텔

□ 참가자 :6 명

- EAMS사무처: Dr. Tomoyuki Kuroda(일본 히다치 연구소)
- 한국 : 이재형(통계개발원장), 김인식(사회통계실)

1) 2006년 6월 AMEICC(아세안-일본 경제·산업협력위원회)에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프로젝트로서 “제조업통계에 관한 동아시아 전문가회의 EAMS(East Asia Expert Meeting on Manufacturing Statistics)” 설립, 우리나라는 2007년 1차 회의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

- 중국 : Ms Wang Xiaohui(국가통계국 과장), Mr Li Zhi(국가통계국)
- 일본 : Mr.Mikihito Murakami(일본 경제통상산업부 과장)

□ 회의내용

- 동아시아 국가간의 산업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토의 (ISIC REV.3에 의해 아시아 표준산업분류 ASIC 3자리를 개발하고 향후 ISIC REV.4에 의해 4단위까지 개발 추진 등)
- 제조업통계의 방법론, 표준화, 통계단위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 토의
- 제조업통계 작성 전반에 대한 한국 통계청 실태에 관한 토론
- AMEICC 공식회원국 참여 방안에 대한 토의
- 2010년 EAMS 회의 한국 개최 필요성 검토

**2. 제9차 아세안통계기관장회의 참석**

□ 일시 및 장소 : 2009. 1.16(금) 싱가포르 그랜드플라자 파크 호텔

□ 참가자 : 62명

- 아세안 회원국 통계대표단 : 30명
- 아세안 사무국 : 3명
- 국제기구(ADB, UNSD, Eurostat, IMF, ILO, SIAP, ESCAP 등) : 14명
- 협력파트너 국가(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) : 15명

□ 회의내용 : 아래 붙임

**III. 향후 동아시아 통계협력 현안 검토**

**1. AMEICC/WGS(아세안-일본 경제산업협력위원회/통계실무그룹) 정식회원 가입 여부 결정**

- 동 사안은 다자간 국제경제산업협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계청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검토 및 대응 필요
  - 우리나라는 AMEICC/WGS(아세안-일본 경제산업협력위원회/통계실무그룹) 활동 결과로 2006년 파생된 프로젝트인 EAMS에 2007년 1차

회의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

- 따라서, EAMS 회원 참여 배경이 된 외교통상부 의견 수렴이 필요

□ 가입할 경우 통계청의 역할·기능과 실익 검토

- 아세안 통계발전에 필요한 협력기금 및 회의개최 비용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전 협의

## 2. 2010년 EAMS(East Asia expert meeting on Manufacturing Statistics) 한국 개최 필요성 검토

- EAMS 사무처(Dr. Tomoyuki Kuroda)의 2010년 한국개최 요청
- EAMS 한국 개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산출물 검토
  - 적극적/소극적 참여로 인한 손실/편익을 고려하고 각국의 Raw data의 제공에 따른 운영 및 공유 메카니즘 확보에 관심
  - EAMS 등과 같이 향후 AMEICC/WGS 회의에서 나타나는 성과 및 파생 그룹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지위 확보 노력 필요
  - 회의개최 비용 및 참가자 초청 등에 관한 사전 협의 등

## 3. 향후 한-아세안 통계협력 방안 검토

- 아세안의 저개발 회원국의 통계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검토
- 제3차 OECD포럼에 아세안 지역 공식통계 관료 및 전문가 초청 검토
- 특정 주제(행복지수, 산업분류 표준화, SNA 등)를 선정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제 통계학술회의 개최 검토
- 자체 산업분류가 없는 라오스, 캄보디아, 미얀마 등에 ODA방식에 의한 기술 지원 필요성 검토

## IV. 기타

### 1. 출장 후기

- 통계청은 2004년 제5차 AHSOM에 처음 옵서버로 초청(오종남 청장)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참가 임. 이번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회원국(AMC)들의 지역경제통합(Economic integration)을 지원할 지역통계

(ASEANstats) 생산 및 개발을 위한 통계 표준화 및 통합작업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인상적이었음

- 아세안의 고위 관료 및 국제기구 통계전문가들은 주요 협력파트너 국가인 “+3 국가(한·중·일)”의 아세안 통계개발지원(ASEAN Statistical Development Assistance)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
- 한편, 일본은 경제통상산업부(METI-Japan)와 일본 통계국이 중심이 되어 아세안 통계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일본 통계국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통계기관장회의와 경제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AMEICC/WGS, EAMS 등의 통계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됨
-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, 통계청에서도 아세안지역을 포함하는 다자간 지역 통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제기구(ADB, ESCAP, SIAP, ASEAN, ILO 등)의 통계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통계협력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임

## 2. 기타

-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도중 베트남 부청장으로부터 전 베트남 통계청장 (Mr. Le Manh Hung)이 간암으로 전날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여 잠깐 동안 고인을 위한 묵념이 있었음
- 회의의 특징 중의 하나로, 회의결과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Media statement 를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마지막 세션에 작성

## <붙임 1>

### 제9차 아세안 통계기관장 회의 내용(요약)

#### <Agenda 1> 제8차 아세안통계기관장회의

- 전년도 (프놈펜) 토의 결과 및 경과 내용 보고(AHSOM 8 회의의 합의사항 및 제안 그리고 현안 등 발표)

#### <Agenda 2> 1.14~15일 개최한 아세안회원국의 전략적 기획세션(Strategic Planing cession)의 토론 결과 공유

- 아세안 회원국의 통계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, 원칙, 목표, 프로그램, 진행결과 모니터링 체계에 관한 협력
- 개선된 AHSOM 메커니즘과 보고체계 구축

#### <Agenda 3> 자료배포, 공유 및 분석에 관한 워킹그룹(WG) 보고

- WG에 관한 실무범위, 구성방법, TOM, 국제기구 및 파트너협력국가 등과의 협력방안 및 업무수행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
- WG 의장 지명

#### <Agenda 4> 아세안 지역 발전 통계지표 및 측정, SNA부문 아세안 협력, 통계 및 분류의 조화

#### <Agenda 5> 아세안의 SNA협력

1. 2008년 10월 마닐라에서 개최한 SNA에 관한 아세안 catch up programme의 지역 워크숍 결과 보고
- SNA에 관한 지역협력의 종합적 목적
  - 공통 타겟
  - AAGSAN(ASEAN Advisory Group on SNA)의 TORs(terms of references)

- ASEAN SNA Forum 의 TORs
- 2008~2010의 즉각적인 Work 프로그램
- 2009년 계획

한편, 아세안 사무국은 AHSOM 승인 하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2009년 계획수립

- AHSOM에 AAGSNA의 임명/지정 회원 선정 요청
- 2009년 초에 AAGSNA 회원들을 위한 웹 기반 토론 포럼을 구축
- AAGSNA의 2009년 회의 장소를 지정하도록 AHSOM 요청
- SNA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재정적 전략 검토

## 2. 2008년 10월 마닐라, SNA아세안 catch up programme 결과

- 아세안 사무국은 AAGSNA(ASEAN Advisory Group on SNA)의 TORs(Terms of reference), 2008~2010년의 immediate-term Work 프로그램 및 2009년 계획을 개선하여야 한다.
- 아세안 사무국이 2008년 12월까지 AHSOM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
  - SNA 이행을 위한 지역 협력의 종합적인 목적
  - 공통의 타깃
  - AAGSNA의 TORs
  - ASEAN SANA Forume의 TORs
  - 2008~2010년의 immediate-term Work 프로그램
  - 2009년 계획
- 2009년 계획과 관련하여 즉시 수행해야할 사항
  - AHSOM에서 AAGSNA의 임명/지정 회원 선출
  - 2009년 초에 구축할 웹 AAGSNA 회원들을 위한 웹 베이스 토론 포럼 설립

- AHSOM에서 2009년 AAGSNA 회의 장소 선정
- SNA 활동을 지원할 재정 전략에 대한 검토

<Agenda 6> Harmonization of statistics and classifications

1. 아세안 공통산업분류(ACIC) 등 표준화된 통계분류를 위한 Task Force (TFSC)
  - ACIC는 3 digit level에서 핵심적 산업분류구조로서 작동할 것이다.  
또한 국가산업분류(SIC)의 2digit 또는 3digit 수준을 개정하거나 4 또는 5 digit 까지 확장하는데 공통적인 참고자료로서 작동할 것이다
  - 이러한 대부분의 목적들이 METI-Japan(일본 경제통상산업부)의 funding을 활용하여 이행될 것이다. 이와 관련된 METI-Japan의 Initiative는 EAMS(East Asia Manufacturing Statistics Expert Group)에서 의하여 수행 된다.
  - 2008년 9월에 상세하게 기술된 ACIC의 초안이 관련국의 의견과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되었다. 그러나 2008년 11월 최종 ISIC(Rev.4)가 공표됨에 따라 ISIC(Rev4.)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CIC 공표가 연기되었다.
  - 가장 최근에는 유엔의 DESA(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)는 국제 경제 사회 분류(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)에 관한 워크숍을 제안하였고 2008년 11월 24~27일 태국에서 개최되었다. 워크숍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참가자들에게 ISIC(rev.4)의 새로운 개정판과 2009년에 공표될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s(Rev.2.0)를 소개하는 것이다.
  - 여기서 캄보디아,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AMS가 국가 SIC를 ACIC에 근거한 ISIC(rev.4)로 개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2009년 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하였다. 이 새로운 국가 SIC Code 는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 수집을 위한 기반으로 즉시 이용될 것이다.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미 국가SIC를 개정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, 부르나이는 아직 개정중이거나 pilot studies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 2. ERIA(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ASEAN and East asia) 진행보고서

- 2006년 일본이 ERIA를 제안하였음
- 2007년 11월 제 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ERIA 설립 동의  
(아세안 회원국, 한중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디아)
- 2008년 6월 ERIA 공식적으로 설립
  - 동아시아의 경제통합(economic integration)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(policy researches) 와 정책제안(policy recommendations)을 추진하기위한 지역기관(regional organization)으로서 설립됨
- 임시로 아세안 사무국내에 ERIA 사무실을 마련
- 회원국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(governing body)가 ERIA의 최종의사 결정 기구 임(한국위원 전경련회장 겸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)
- 학술 후원기관: 회원국별 1~2개 연구소가 후원기구로 참여(한국, KIEP)
- 정치적 후원 : 일본
- 추진 실적
  - 2008 EAS 에너지 장관 회의(태국)에 정책제안으로 "EAS Energy Outlook"과 "EAS-ERIA Bio-Diesel Fuel Standards" 작성 하여 보고
  - 2008 경제장관회의에서 ERIA의 연구 활동 및 정책제안 보고서 등에 대한 역할 기대 표명하였고, 일본정부와 ERIA가 공동으로 에너지 및 식량 안보관련 심포지엄 개최할 것을 제안
  - East Asia Industrial Corridor(EAIC) Project의 학술적 지원(EAIC에 관한 Concept 세미나 개최, Concept paper 작성 등)
  -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ERIA의 Annex Office 설치(본부는 아세안 사무국내 설치)
  - 2008.12월 에너지 및 식량 안보관련 심포지엄 개최
- 향후 계획
  - 경제통합, 회원국 격차 감소,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정책 등에 관한 정책연구 활동

## 강화

- 광범위한 정책연구 및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와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연구소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증진
- 현행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(East Asia Industrial Corridor Project, Environment and Energy Security and Business Environment Improvement in East Asia)

### 3. 아세안 인구센서스 포럼 창설 (개정 및 제시된 업무 프로그램 중심)

#### <배경>

- 2006년 유엔통계처와 아세안 사무국 그리고 캄보디아 통계청이 중요성에 공감
- 2008년 12월 유엔통계처장 폴청이 아세안 사무국과 인도네시아 통계청 방문하여 2009년에 2010년 라운드 인구센서스에 관한 follow up/new 지역 워크샵을 계획에 관하여 토론
- AHSOM은 아세안 지역 인구센서스 포럼의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 포럼이 아세안과 회원국에 대한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 또한 AHSOM은 동 포럼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통계처에 협력을 요청할 것임.
- ACIC는 3 digit level에서 핵심적 산업분류구조로서 작동할 것이다.
- 또한 국가산업분류(SIC)의 2digit 또는 3digit 수준을 개정하거나 4 또는 5 digit 까지 확장하는데 공통적인 참고자료로서 작동할 것이다.
- 이러한 대부분의 목적들이 METI Japan funding을 활용하여 이행될 것이다
- 이와 관련된 METI-Japan의 Initiative는 EAMS(East Asia Manufacturing Statistics Expert Group)에 의하여 수행된다.
- 2008년 9월에 상세하게 기술된 ACIC의 초안이 관련국의 의견과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개정되었다. 그러나 2008년 11월 최종 ISIC(Rev.4)가 공표됨에 따라 ISIC(Rev4.)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CIC 공표가 연기되었다.

- 가장 최근에는 유엔의 DESA(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)는 국제 경제 사회 분류(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)에 관한 워크숍을 제안하였고 2008년 11월 24~27일 태국에서 개최되었다. 워크숍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참가자들에게 ISIC(rev.4)의 새로운 개정판과 2009년에 공표될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s(Rev.2.0)를 소개하는 것이다.
- 여기서 캄보디아,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AMS가 국가 SIC를 ACIC에 근거한 ISIC(rev.4)로 개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2009년 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하였다. 이 새로운 국가 SIC Code 는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 수집을 위한 기반으로 즉시 이용될 것이다.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미 국가SIC를 개정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, 부르나이는 아직 개정중이거나 pilot studies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<Agenda 7> 자원배분계획, 아세안과 국제프로그램 및 협력 이니셔티브

##### 1. 향후 한-아세안 통계협력을 위한 의견 제시(통계개발원장)

- 통계청장을 대신하여 AHSOM회의에 초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
- 한국은 ASEAN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,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11월 아세안사무국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통계제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음. 앞으로도 KNSO는 아세안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
- 우리는 ASEAN과의 협력을 위하여 앞으로도 ASEAN의 여러 통계협력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. 아울러 ASEAN 사무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통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음. 이러한 협력관계는 ASEAN 더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의 동반적인 발전에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 함
- 금년 10월에는 한국에서 제3회 OECD 세계포럼이 개최될 계획임. 이 행사에도 아세안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. 참석의사는 있으나,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음.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OECD 포럼 준비단에 신청하면 KNSO

규정에 의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

## 2. 호주통계청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통계협력(Dialogue with countries of the Asia-Pacific Area)

- 호주는 국제통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통계발전에도 기여 함
- 특히 국제통계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SNA의 최근 Update 에 역할 수행
- 최근에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통계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
  - 2008년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의 통계전문가와 고위관료가 호주 통계청을 방문하였음
- 호주통계청은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이나 광범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development assistance를 위한 호주의 기여방식의 하나로 아세안 지역에 일정부분 technical assistance를 수행 하고 있음
- 호주통계청은 통계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대상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여김
- 호주통계청은 연수 및 advice 등을 통하여 호주의 통계기법과 지식을 전수하여 저개발국가의 통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
- 최근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통계 지원활동을 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노동력 통계와 ICT 통계기법 전수, 말레이시아의 자본스톡체계의 개발, 태국과 베트남의 향후 인구센서스 실시 방안 등에 관한 advice 제공이 있음
- 향후에도 호주통계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통계지원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호주통계청 국제협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## 3. 국제노동기구(ILO)의 노동통계와 분석에 관한 아세안 지역 협력

- 아세안 지역의 노동통계와 분석능력을 개선하기위하여 협력체계(cooperation framework)를 구축해야 함. 이러한 프레임 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
  - 노동시장통계(labour Market Statistics)의 harmonization
  - 노동시장통계에 대한 Comparable database 구축

- 정책결정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노동시장통계의 분석 및 활용 증대
-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
  - SNA를 포함하는 경제통계분야의 cooperation framework에 노동시장통계를 포함
  - 국가발전,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, MDG 지표 그리고 Decent Work Agenda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노동시장 지표의 initial set 을 포함시키고 개발해야 함
  - AHSOM, SLOM, 제 3자, ILO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시장통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형태의 조정기구(instrument of coordination)를 설치

<Agenda 8> 기타 및 제10차 AHSOM 회의 개최국 브리핑

- 빈곤, 교통, 어업 통계에 관한 이니셔티브(initiatives)
- Date and Venue for AHSOM 10

<Agenda 9> 결론 및 Media Statement 작성